

스며드는 색, 먹빛의 사유...한 뿌리 예술은 아름다워라

하정웅미술관, 광주예고 한국화 동문 '예맥회' 초청전

'이원동근의 정원' 주제...선·후배 작가 28명 한자리

한지 위로 물이 번지듯 퍼지는 색, 곱게 간 돌가루 안료인 석채가 남기는 은은한 빛. 자연스러운 번짐과 담담한 정서로 떠올리는 한국화의 풍경이다. 특히 남도 지역의 한국화는 오랜 세월 세대 간 전승을 거치며 지역적 정체성을 쌓아온 전통이 강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성장한 작가들의 공동체가 광주예술고등학교 한국화 동문 중심의 단체 '예맥회'다. 이들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가 오는 5월2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하정웅미술관에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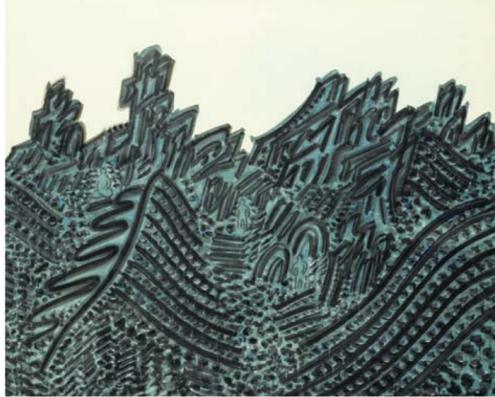
조선아작 '기억의 처음'

하정웅미술관은 그동안 하정웅 명예관장의 기증 컬렉션을 소개하는 전시나 청년 작가를 지원하는 '빛' 전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과거 상록전시관 시절에는 지역 미술단체 초대전을 꾸준히 열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러한 전시가 거의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사진그룹 '포럼 디세뇨'와 협업한 '광주와 근대정신' 전을 계기로 지역 미술단체 초대전이 다시 시작됐고, 올해는 그 흐름

을 본격화하는 자리로 한국화 작가들을 초청했다. 광주가 한국화 전통이 강한 도시라는 점에서, 광주예고 한국화 동문회인 예맥회를 초대할 것이다. 예맥회는 1987년 제1회 정기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단체다.

이번 전시에는 1기 8학년부터 1994년생 작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28명이 참여해 서로 다른



이구용작 '산-사유3'(왼쪽)과 이정열작 '의도필불도'

시기의 작업 세계를 함께 보여준다.

전시 제목 '이원동근의 정원' (異源同根의 庭園)은 이러한 관계를 상징한다.

'이원'은 전통과 현대, 수묵과 채색, 재현과 추상, 평면과 공간처럼 서로 다른 조형 언어가 공존하는 이원적 복합성을 의미한다.

'동근'은 이러한 차이가 결국 같은 교육과 정신적 토양에서 비롯됐다는 뜻을 담는다. 즉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한 작가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며 만들어낸 차이가 앞으로 어떤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는 자리다.

전시장은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출품 기준을 100회 이상 대형 작품 위주로 뒤 전체적으로 시원하고 강한 인상을 준다.

첫 번째 섹션은 '스며드는 색의 풍경'이다. 색채를 중심으로 한국화를 새롭게 해석하는 작품들이 모였다. 한국화에서 색은 오랫동안 부차적 요소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 섹션에서는 색이 화면을 이끄는 주체적인 조형 언어로 작동한다. 번지는 색과 안료의 질감을 통해 화면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펼쳐진다.

두 번째 섹션은 '먹빛의 사유'다. 먹의 번짐과 농담, 여백 등 수묵의 물성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이어진다.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화면 구성이나 감각은 동시대적으로 확장된 작업들이 모였다. 먹의 농담이 만들어내는 깊이와 여백의 긴장 속에서 작가들의 사유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마지막 섹션 '응축된 이미지의 장'은 세 점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얼핏 보면 서양화처럼 보이는 화면이 눈에 띈다. 안료 선택과 화면 구성에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며 장르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작업들이다. 전통적 한국화의 형식을 넘어 새로운 조형 가능성을 탐색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조선아 예맥회 회장은 "예맥회는 광주예술고 한국화 전공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걸은 작가들이 다시 만나 작업을 나누는 공동체"라며 "남도 한국화의 전통 위에서 성장한 작가들이 한자리에 작업 선포한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는 예맥회의 흐름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살아있음'과 '사라짐'...경계서 마주한 찰나의 감정



'Life'

주라영 초대전 'Life is a miracle'...오는 29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얻은 깨달음을 원색의 물감과 인간의 얼굴로 풀어낸 전시가 열린다.

오는 29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열리는 주라영 작가 초대전 'Life is a miracle'이다. 전시장에는 화면을 가득 채운 '얼굴' 형상의 대형 작품들과 비교적 작은 크기의 소품까지 총 130여점이 함께 걸렸다.

큰 작품들은 어둡고 고뇌하는 얼굴을 중심으로 한다. 거친 질감과 흠어지는 점의 표현을 통해 인간이 고통스러운 장면을 바라보거나 견디는 순간을 형상화했다. 반면 소품들은 밝고 경쾌한 색채로 환희의 감정을 드러낸다. 전시는 이처럼 극도의 고통과 환희가 교차하는 감정을 함께 보여준다.

이번 작업은 작가가 2024년 겨울 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경험한 생각에서 출발했다. 작가는 그 시간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가'를 되돌아

보게 됐고, 살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는 깨달음을 작업으로 이어갔다.

작품에서는 원색의 물감이 겹치고 흐르다 멈추는 방식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작가는 이를 통해 '살아 있음'과 '사라짐'을 동시에 드러내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전시된 작품은 이러한 사유와 치유의 시간을 거쳐 완성된 작업들이다.

최근 선보이는 '얼굴' 연작은 흐르는 색채 사이에서 관객과 시선이 마주치는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작품 속 인물들은 놀라움이나 고통이 뒤섞인 표정으로 화면에 등장하며, 관람객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

주흥 갤러리 생각상자 관장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인간 존재와 삶의 순간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작업들"이라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잊혀진 것들에 스며든 기억들

윤혜란 개인전, 19일까지 드림미술관

'전통과 현대, 문자와 형상, 한 화면에서 어우러진다.'

드림미술관은 오는 19일까지 윤혜란 작가 개인전 '스며든 기억'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서예와 수채화, 고문자를 결합한 작가의 회화 작업을 통해 시간과 기억, 감정의 층위를 탐색하는 자리다.

작가는 전통 서예의 단단한 획과 수채화 특유의 부드러운 번짐을 한 화면 안에서 결합해 독특한 조형 세계를 구축해 왔다.

작품에는 화각함의 장식적 요소나 산수 문전의 굴곡진 선, 청화백자의 여백 등 전통적 미감이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수채화의 맑은 색채와 결합해 정적인 화면에 은은한 온기를 더한다. 또한 화면 곳곳에 등장하는 글귀 역시 주요한 표현 요소다. 작가는



'문전(紋疇), 사라짐을 세기다'

한시의 문장을 차용해 옛 시인의 사유를 불러오거나, 갑골문을 활용해 고대 문자의 형상과 의미를 시각적 상징으로 풀어낸다.

윤혜란 작가는 "잊혀진 것들과 사라진 문자, 지나간 사물들을 다시 불러내 그 안에 깃든 사람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다"며 "그 마음이 오늘을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며 매번 처음처럼 빛을 든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나왔다!!! 마시는 씨알-렉스 PREMIUM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씨알-렉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효능·효과는 물지마세요!

주요성분 비수리(야관문), L-아르지닌, 아연, 마카, 복분자, 토사자, 오미자, 사상자, 산수유, 마늘 등



1박스-60,000원

남자한테 좋은데~

표현하기가~

※ 하루 한포면 충분합니다.

NH농협손해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3억 가입

특이청

상품등록 : 제40-1007119호

각 시·군 취급점 모집

© 광주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문 080-374-5046 / 010-3738-8989

보람약품(주) 062)528-6664